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문화융성, 지역 디스카운트 해결이 첫걸음

남 진 규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산업 전문위원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이 있다. 이는 예전 한국 경제의 불투명성, 불확실성을 근거로 한국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면서 붙여진 수식어다. 이 수식어는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에 대한 저평가를 대변해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요즘은 이 수식어를 좀처럼 듣기 힘들다. 한국이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그만큼 상승했다는 결론인데, 상승의 중요한 견인차 중 하나로 '한류(韓流)'를 들어도 크게 부정하는 사람이 없을 듯하다.

필자 역시 '한류'를 실감했던 사례가 있다. 2년 전, 중국 광동지역에 우리 회사의 애니메이션 '뭉게공항'의 완구를 수출한 바 있는데, 그 당시 한국어 포장의 완성품에 대하여 중문(中文)으로 다시 포장해야 하는 것 아닐까? 라며 수출 단가 상승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중국의 대형마트 담당자는 "무슨 소리냐? 한국어가 표기되어야 중국 상품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소비자가 선택한다. 새로운 포장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여 일정부분 단가를 절감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이렇듯 국가나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는 모든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할 수 있다.

반면, 국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탈출하였으나 지역에서 콘텐츠 기업을 운영하는 현실에서는 지역의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비단 필자의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의 ICT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듣게 되면 지역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 공공입찰이나 국고 지원사업 신청에서 지역의 기업들은 지역 디스카운트의 높은 장벽을 실감하게 된다. 요즘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심사 시 지역 업체 가점부여를 통해 이를 해소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체감하기엔 많이 부족해 보인다.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 자치단체나 공기관에서도 지역 디스카운트가 발생한다. 입찰이나 용역에서 용역금액이 낮은 것은 지역 업체에서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형 사업의 경우 수도권 기업의 차지가 되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 된지 오래라는 부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 사례가 지역 기업의 역량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정량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정성적인 문제는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 있다. 비즈니스에서 처음 이뤄지는 것이 명함교환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업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일 경우 왠지 모를 위축감과 상대방이 우리 회사를 저 평가하고 있다는 자격지심에 회사 소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업무상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 필자는 외국기업과 비즈니스 할 때 그 기업의 소재지가 수도가 아닌 지역이라도 그렇게 지역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고민해 얻어낸 결론중 하나는 '대부분의 경우 지역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였다'라는 점이다.

필자 역시 외국 파트너가 춘천을 잘 몰라서 '배용준','겨울연가 촬영지'라고 어렵게 이해를 시킨 적이 있다. 물론 하나의 예를 든 것이고 원인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결론적으로 지역 디스카운트의 문제는 지역 업체 특혜와 같은 단기적 해결방안으로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시적 관점의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 정책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지역기업들의 성장이 저해됨은 물론이고 신규기업과 인력의 창출이 어려워지며 나아가 지역 문화 콘텐츠산업의 기반이 위태로워질 것이 자명한 일이다. 이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문화융성 내에 지역 균형 문화 발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 걸음이자 근본(Foundation)이라는 생각이다.

의료칼럼

입술 포진 증상과 치료

김 형 태
예송이비인후과 음성센터 원장

사업가 김모(41)씨는 2주 전 갑자기 음식물 삼키기가 곤란하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첫 증상이 나타난 후 4일만에 침을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됐다. 쉰 목소리가 나타나기 2주 전부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해 피곤함을 많이 느꼈으며, 입술 주변에 물집이 생겼다. 후두내시경 검사결과 왼쪽 성대가 움직이지 않는 성대마비였으며, 성대 점막의 염증은 없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신체 면역력이 떨어질 때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여성의 질염 또는 입술 주변의 포진 등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신경을 타고 몸의 곳곳에 작용할 경우 안면마비, 청각이상, 성대질환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처음 감염 후 신경절에 잠복기를 거친 후 부교감 신경 중 가장 큰 미주신경에 작용, 성대를 마비시켜 목소리를 쉬게 하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게 하는 연하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피부 점막이나 손상된 피부 등으로 우리 몸에 들어와 평생 감각운동 신경에 잠복하다가 자극을 받으면 재발하는 바이러스다. 피부의 표피와 진피 부위에서 증식한 후 주변 신경세포 속으로 침투해 잠복 상태로 존재한다. 잠복기에는 신경세포 내에 바이러스가 살아 있지만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지 않다가 자극에 의해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 감각신경을 타고 다른 점막 부위로 이동해 질환을 일으킨다. 여성들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염을 일으키거나 입술 주변의 물집을 일으키는 입술 포진, 신경절염과 신경염을 일으켜 감각, 운동신경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미주신경은 운동, 감각, 부교감신경이 연결된 주요신경으로 이곳에 병이 생긴 경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성대마비는 가장 초기에 나타나는 흔한 증상이다. 급성 성대마비와 삼킴곤란 등이 단순 헤르페스의 재활성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정상적인 성대는 숨을 쉴 때 양쪽 성대가 열려 공기가 원활하게 폐로 들어가고, 말을 할 때는 성대가 모아져 닫히면서 폐에서 공기가 내쉬어져 성대가 떨리는 과정을 거쳐 목소리가 나온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 한쪽 또는 양쪽 성대가 마비될 경우 숨을 쉴 때 성대가 완전히 열리지 못하고 목소리를 낼 때도 정상적으로 성대가 모이지 않아 쉰목소리가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성대마비 정도가 심하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대화 중 공기가 모두 새나가 피로도가 심해지고 발성 시간이 단축된다. 또한 쉽게 숨이 차고, 음식물 섭취 시 사레가 잘들고 삼킴곤란도 심해진다. 성대마비가 양쪽에 진행됐을 경우 호흡곤란이 발생해 응급상황이 되기도 한다.

성대마비 증상이 경미한 경우 충분한 영양공급과 휴식, 음성치료를 통해 자연회복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성대마비가 회복되지 않고 진행될 경우 시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시술은 벌어진 양쪽 성대 사이 틈을 없애주는 치료법을 시행하는데 내시경을 이용해 마취나 피부 절개 없이 목에 주사를 통해 치료하는 경피적성대성형술을 시행할 수 있다. 또 양측 성대마비 때문에 기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성대절제술, 신경재생술 등이 시행되기도 하며, 심한 경우 기관절개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양측 성대마비는 좌우 성대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후두의 폐쇄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위급한 경우도 생긴다. 목소리는 나올 수 있으나 호흡곤란의 정도는 환자에 따라 다르며 응급으로 기도유지 시술이 필요한 경우부터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기 고

올 여름 전기사용 불편 없으셨죠?

이 성 구
한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력사업처장

요즘도 낮 기온이 섭씨 30도가 넘는 막바지 더위가 한창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냉방기 가동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전력공급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겪었던 시절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올 여름은 전력공급이 넉넉한 수준이어서 안심해도 될 것 같다.

짧은 장마가 지나가면서 전력사용이 급증하고 있어서 전력 부족상황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긴장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신규 발전설비 준공 등으로 인해 전력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전력사용량이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8월 셋째 주에도 공급 예비력은 700만kW이상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는 전국 최대전력수요가 7691만kW로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나, 공급예비력이 1268만kW(공급예비율 16.5%)로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우리 광주·전남지역도 8월 들어서 작년 여름 수요량을 뛰어넘는 전력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역시 전체적인 전력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정도다.

올해는 편하게 냉방기를 사용을 해도 전력공급 능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몇 해 동안 에어컨도 맘대로 켤 수 없는 불편을 드려 안타까웠는데 더 이상 그런 불편을 드리지 않아도 될 상황이어서 한시름 놓인다. 다만, 예년에 없던 이상기온이나 자연재해, 대형 발전기 불시정지 등 예기치 못한 전력공급 부족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엘니뇨현상으로 기온변동성이 커지고 강한 태풍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기상이변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대형 발전소 및 발전소와 연계되는 송전선로, 제주도에 공급하는 해저케이블 설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노력하고 있다.

한전은 8월말까지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 전력수요 컨트롤 타워인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단계별 대응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력수요는 여름과 겨울철 사용량이 다른 계절에 비하여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일시적인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한전은 발전소 및 송전선로를 추가로 건설하며 공급량을 늘리는 노력을 주로 해왔다. 하지만 발전소와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며 환경문제, 지역주민의 민원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과거에는 규제중심의 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여름철과 겨울철에 급격하게 전력사용이 늘어날 때 한전이나 전력거래소가 주요 산업체 등에 수요감축을 요청하면 그에 따라 산업체에서 수요를 감축하거나, 절전규제 등 직접적인 사용규제를 통하여 전력수요를 조절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전력수요관리 정책은 단순 규제중심에서 기술과 시장중심의 수요관리로 바뀌고 있다. 작년 11월에는 수요자원거래시장을 개설하여 여름과 겨울철 전력수요가 높을 때 전기 소비자가 공장, 빌딩, 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 하여 수익을 거두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절전과 안정적인 전력수급은 물론 전력공급 비용을 낮추는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있다. 규제를 통한 절전에서 전력거래시장을 통한 자율절전과 합리적인 전기사용을 유도하는 커다란 변화이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 민간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흔히 발전소로 알려진 발전사업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원시장에 참여하는 수요관리사업자들도 전력시장에 참여하여 경쟁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에서 얻은 수익을 바탕으로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설비투자가 이어진다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종합컨설팅 사업 등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시장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전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전력사용량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여 비용절감 및 전력공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전 국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력부족 상황을 잘 극복하여 올 여름은 전력 부족으로 인한 불편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다만, 전력공급이 여유롭다고 하여 전력을 낭비하거나, 펑펑 써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어 보인다. 발전을 위한 연료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혜롭게 전기를 사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 說

시민참여예산제 기대 크지만 과제 많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독점권을 막고 시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광주시는 민선 6기 핵심정책으로 시민참여예산제를 들고 나왔다. 시민들로부터 486건에 1101억 원에 달하는 사업을 접수받아 최종 78개 사업에 125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첫 시행이고 윤장현 시장의 핵심정책인 만큼 별다른 진통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이디어 사업이 눈에 띈다. 여성 거주지에 안심 택배함을 설치한다거나 낡은 여관을 예술로 꾸미는 예술여관 프로젝트는 신선한 발상이다. 어르신과 대학생이 같이 거주하는 셰어하우스는 대학생에겐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어르신은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하지만 마을 민원 해결성 사업 제안도 눈에 띈다. 북구 문흥동에 CCTV를 설치해 달라거나 골목길 정비를 해달라는 사업은 생활 민원에 가깝다.

광주시는 시행에 앞서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남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는 시행 첫해 33건에 3674억원의 주민제안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 첫해라 주민참여예산제 반영 범위를 폭넓게 잡은 면이 있지만 2013년에는 4건에 21억 원, 2014년은 4건에 8억5000만 원으로 크게 줄었다. 갈수록 민원성 사업이 많아 이를 배제하다보니 예산 반영률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전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제가 성공하려면 민원성 사업은 줄이면서도 반짝이는 아이디어 사업을 많이 발굴하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충장로 상가 사후면세점 꼭 지정해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상가들을 '사후면세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필수적인 시내면세점 하나 없는 광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성사되면 상인들은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관광객들은 세금환급으로 쇼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 지역경제에도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구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면세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에는 충장로 상인들을 대상으로 '사후면세점 설명회'를 갖는다. 이어 연말까지 충장로상점가를 사후면세 쇼핑거리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사후면세점 제도'는 3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 10%와 개별소비세를 공항 내 면세환급창구(Tax Free)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외국인 관광객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쇼핑 만족도가 높아진다. 상인과 쇼핑객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인 셈이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유커 모셔오기'에 혈안이 돼 있다. 소득과 고용 증가 등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을 찾는 중국인 70% 이상이 쇼핑하기 위해서라고 하니 이들을 붙잡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는 타 도시에 비해 쇼핑공간, 편의성, 접근성에서 모두 뒤지는 게 사실이다.

다행히 동구의 사후면세점 추진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충장로에 가야만 볼 수 있고 살 수 있는, 지역 상점가의 특성을 살린 충장로만의 온리원(only one)을 발굴해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전당 등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과 쇼핑서비스 향상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통해 사후면세점 이용수요 창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도량형 피로

외국여행을 할때 느끼는 문화차이의 하나가 도량형이다. 길이나 무게, 양을 측정하는 도량형이 달라 느끼는 피로감이 상당하다.

외국에서 골프 라운딩을 하다 보면 국내와 가장 다른 점이 거리 측정법이다. 그린까지의 남은 거리를 측정할때 국내에서는 대부분 미터(m)를 쓰지만 외국 골프장은 야드를 사용하는 곳이 대다수다. 야드(1야드 91.4㎝)는 그래도 익숙한 편이라 미터에 9를 곱하는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문제가 없다.

미국에 가면 도량형 스트레스가 더 크다. 고속도로 표지판은 마일로 돼있고 주유소에 들르면 갤런(1갤런 3.78ℓ)을 리터(ℓ)로 환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온도는 섭씨가 아닌 화씨로 표시돼 있어 77°F(섭씨 25도)를 보곤 몇도인지 짐작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도 변화된 도량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평을 제곱미터(㎡)로 바꾼지 오래됐지만 아직도 아파트 평형을 표시할때 102㎡보다는 31평이 익숙하다.

마땅한 기준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길이를 측정했다. 성인남자 가운데 손가락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큐빗'(약 50㎝)이라고 하는데 고대 이집트에서는 큐빗으로 피라미드 벽돌 크기를 정했다. 야드는 영국 헨리1세가 정했는데 가슴 한가운데부터 손가락끝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피트(30.48㎝)는 발 길이이고 인치(2.54㎝)는 어른 엄지손가락 너비에서 유래됐다.

길이는 1791년 프랑스에서 미터법이 개발된후 1960년 '미터조약'을 거쳐 세계 공통 단위로 정착했다. 지구촌에서 미터법을 따르지 않는 나라는 미국·미얀마·라이베리아 뿐이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링컨 채피가 미터법 사용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이후 수차례 미터법 도입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99년에는 2000억원을 들인 화성탐사 위성이 궤도진입에 실패해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서로 다른 도량형(제조사는 야드를 쓴 반면 NASA는 미터법 사용) 때문이었다.

독자적 도량형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궁금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